

엄마가 편찮으시던 날들

박정훈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날씨: 바람이 시원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긴 시간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어떻게 보살필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다. 학교에는 누가 데려다줄지, 밥은 누가 차려 줄지, 숙제는 또 어떻게 봐 줄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다.

엄마는 최대한 입원을 늦추셨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엄마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을 것 같다.

“정훈아,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금방 올 거야.”

엄마는 병원에 갈 때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면 금방 온다고 하셨다. 하지만 엄마는 금방 오시지 않았다. 자그마치 한 달이나 입원을 하셔서 나는 아빠와 둘이서 지내야 했다.

그날부터 아빠는 엄마의 뒤통까지 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려 주시고 서둘러 학교까지

데려다주셨다. 그리고는 일터로 나가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다. 퇴근해서도 아버지는 쉴 시간이 없었다. 퇴근길에 사 오신 반찬을 꺼내 저녁 밥상을 급하게 차리시고 나의 숙제까지 봐 주셔야 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철이 없었는지 숙제가 어렵고 많다고 계속 투덜 거려서 아버지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엉덩이를 자리에 붙여 앉을 틈이 없었다. 빨래와 설거지도 해야 했고, 나의 투정도 받아 주셔야 했다.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나는 투정이 더 많아지고 아빠 말도 더 듣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사과처럼 빨갱게 된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예쁜 꽃을 사셨다. 엄마가 꽃을 좋아하셔서 매번 다른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는 병원 이름이 잔뜩 쓰인 환자 옷을 입고 병실에 누워 계셨다. 장미처럼 예뻐던 우리 엄마 얼굴이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 보였다.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정훈이 며칠 사이에 많이 컸네.”

라며 한참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엄마가 울어서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아서 꼭 참았다.

엄마를 병실에 혼자 두고 나올 때, 아버지와 나는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침묵이 한참이나 이어졌다.

아버지는 내가 우울할까 봐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니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부산 해운대이다. 아버지와 함께 모래성도 만들고 수영도 했다. 갈매기들에게 새우깡도 주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모래성은 해리 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성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다. 그때는 잠시 우울한 마음을 잊고 날아갈 듯이 행복했다.

엄마는 한 달이 지나고 퇴원을 하셨다.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힘없는 꽃처럼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다. 그래도 엄마가 오셔서 우리 집이 뭔가 짝 찬 느낌이 들었다. 아빠도 웃음을 보이셨다. 나는 엄마의 말을 엄청 잘 들으려고 노력했다. 아침에는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났고 숙제도 투정 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엄마는 차츰 좋아지셔서 이제는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게 되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경주에 가서 울긋불긋 단풍이 든 길도 걸었다. 오른손은 엄마를 잡고, 왼손으로는 아빠를 잡고 걸으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추어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